
SEONGIL ENERGY INC
| 도로가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SWH 에너지 고속도로
도로 위의 바람을, 바로 전력으로.
기술소개 보기 →
달리는 바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됩니다.
가로등형 인버터 · ESS
- 3 kW 인버터 + 10 kWh ESS
- (독립형 에너지 저장장치)
주변 지역에
저압 전력 공급 (48V)
케이스형 벽부 풍력발전기
(코아리스 · 이중로터)
주행 차량에 의한 풍력
주행 차량 바람 활용
달리는 차량이 만드는
바람을 전기로 변환
케이스형 벽부 풍력발전기
코아리스 · 이중로터 구조
저풍속(2m/s) 시동, 저소음
가로등형 인버터 · ESS
발전 전력 변환 및 저장
독립형 ESS로 안정적 운영
저압 분산 전력 급전
48V 저압으로 주변 지역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
현장 생산 · 현장 소비
생산한 전기를 인근 시설에서
바로 사용
송배전 부담 감소
기존 송배전망 손실 없이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실현

SEONGIL ENERGY INC

도로가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 도로 위의 바람을, 바로 전력으로.

1 현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

풍력과 태양광은 분명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로 인해 국가 전력의 핵심 대안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의 문제점



바람 의존성
일정한 바람이 있어야만 발전 가능
(바람이 없으면 발전 불가)

출력 변동성
풍속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
계통 연계가 어려움

소음 및 민원
저주파 소음, 경관 훼손으로
주민 민원 발생

넓은 설치 부지
발전효율을 위해 넓은 토지가 필요
(산지·해상 중심, 도심 설치 어려움)

높은 유지보수 비용
구조물 크고 부품이 많아
설치·유지보수가 어려움

태양광발전의 문제점



주야간 발전 불가
밤에는 발전이 되지 않음
(평균 이용률 낮음)

기상 영향
흐림·비·미세먼지 시
발전량이 크게 감소

넓은 설치 부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여
농지·산지 훼손 문제 발생

계통 불안정성
날씨에 따른 출력 변동으로
계통 안정화에 추가 설비(ESS) 필요

환경 문제
패널 수명 후 폐기물 처리 문제
(재활용 어려움, 환경 부담)

현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로 인한 국가 전력 문제

높은 전력 생산 비용
보조금 의존으로
경제성 부족

계통 부담 증가
출력 변동으로
계통 안정화 비용 증가

토지·환경 갈등
대규모 부지 확보로
환경 훼손 및 주민 반대

추가 ESS 필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규모 배터리 설비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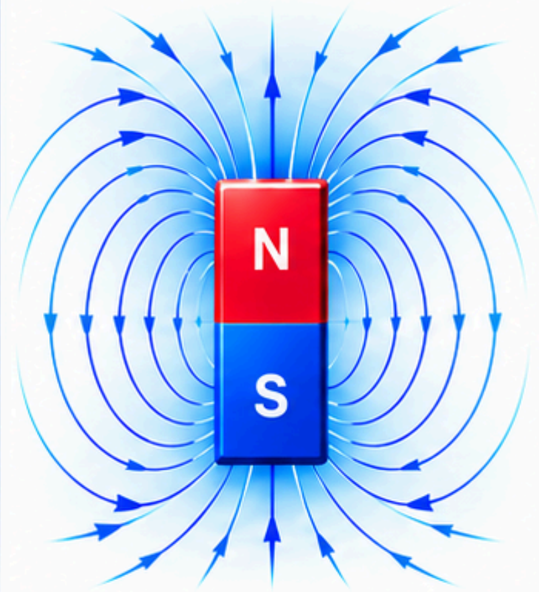


결국, 기존 방식만으로는
국가 전력의 안정적·지속적인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일에너지 더블 로터 제너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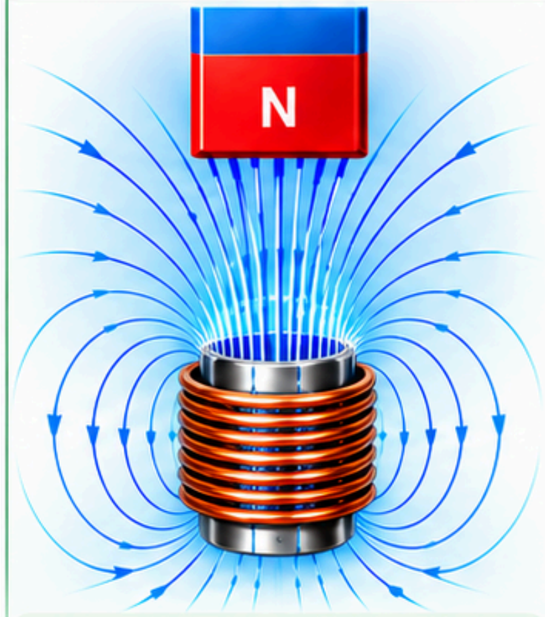
코어리스 이중 로터 자속집중 기술 (특허출원)

① 자석의 자력 분포



자석의 자력선은 주변으로 둥글게 퍼져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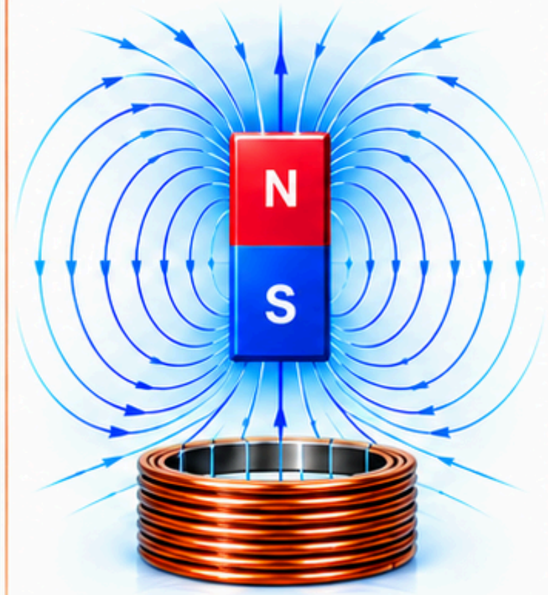
② 일반 발전기 (철심이 있는 경우)



자석이 철심을 세게 끌어당겨
자력선이 철심 쪽으로 확 몰리고,
코일로 전달되어 전기가 잘 생기지만
돌릴 때 무거워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 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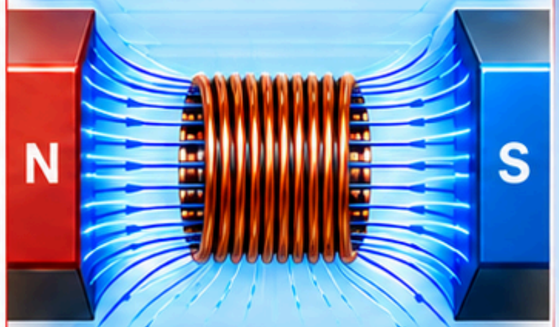
③ 코어리스 발전기 (철심이 없는 경우)



철심을 빼면 자력선이
코일로 집중되지 않고 자석 주변으로
퍼져 버려서 전기는 약하지만
회전은 가벼워진다.

시중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이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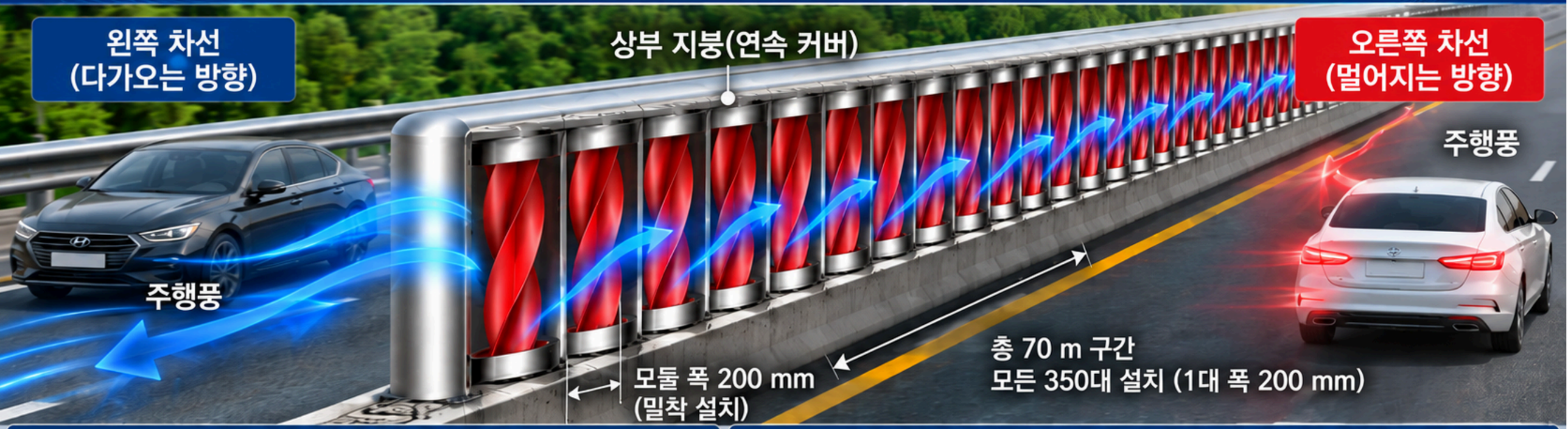
④ 성일에너지 더블 로터 제너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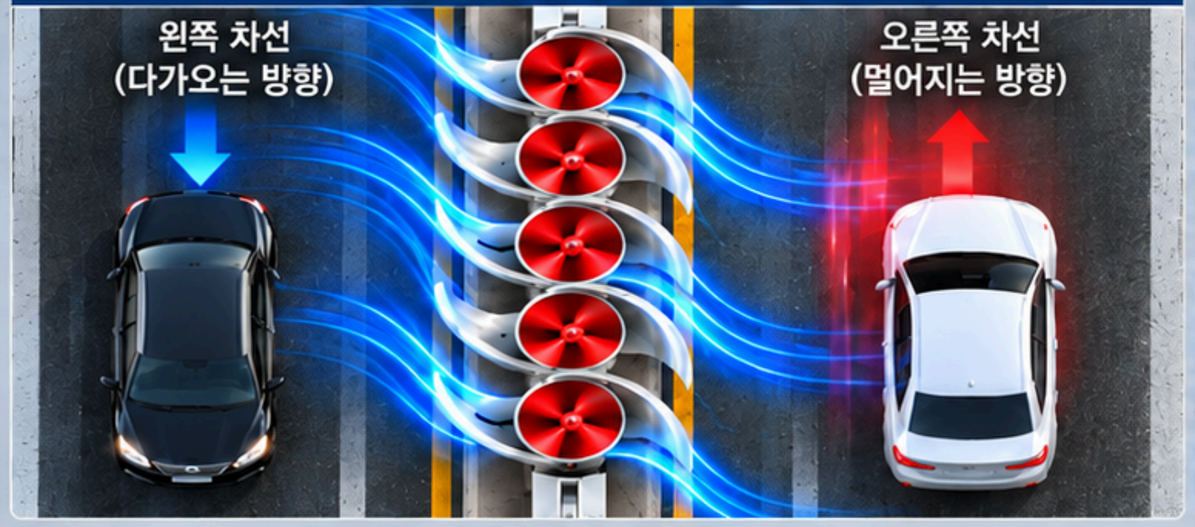
철심 없이도
양쪽 자석을 N-S로 마주보게 배치하여
퍼져 있던 자력선이 코일 쪽으로
잘 모여 전달된다.
따라서 가볍게 돌리면서도
충분한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 – 차량 주행풍을 활용한 풍력발전 시스템



위에서 본 모습 (지붕 생략)



중앙 분리대와 양쪽 가이드 설치 (양쪽 끝 한 줄씩 추가)



| 도로가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고속도로 풍력 발전기

도로 위 바람을, 바로 전력으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설치된 소형 풍력 모듈이
주행 차량의 바람과 도로 회량풍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가로등별 인버터·ESS를 통해 주변 지역에 바로 공급하는
분산형 도로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기술소개 보기 → 문의하기



중앙분리대·가드레일 설치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연속형 소형 풍력 모듈

가로등별 인버터·ESS 연계
모듈별 전력변환 및
독립형 ESS로 안정적 운영

저압 분산 공급
48V 저압으로 주변 지역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

현장 생산·현장 소비
생산한 전기를 인근 시설에서
바로 사용

송배전 부담 감소
기존 송배전망 손실 없이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실현

SEONGIL ENERGY INC

고속도로는 신재생에너지를 구현하기에 가장 최적의 인프라입니다.

이미 있는 도로, 이미 있는 가로등, 이미 있는 전력선
추가 부지·시설 없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추가 부지 불필요

기존 도로 부지 활용
신규 토지 확보 불필요



시설 비용 최소화

이미 설치된 가로등 기동 활용
별도 구조물 불필요



전력선 비용 불필요

기존 가로등 전력선 활용
별도 송배전선 공사 불필요



일정하고 풍부한 바람

차량의 지속적 주행으로
연중 일정한 풍속 확보



주민 반대 없음

주거지역이 아닌 도로 구간
민원·환경 갈등 최소화



분산 설치로 안정적 공급

전국 도로망에 분산 설치
지역별 안정적인 전력 생산



SEONGIL ENERGY INC

2 우리 기술의 핵심 장점 ①

추가 부지 없이, 별도 시설 없이,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지 불필요
기존 도로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시설물 불필요
대규모 발전단지, 기초공사,
건축을 등 추가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전력선 불필요
기존 가로등 전원망을 활용하여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 갈등 없음
주거지역이 아닌 도로 구간에
설치되어 소음·경관·생활 피해
등 갈등 요인이 없습니다.

환경 훼손 최소화
산지·해상 개발이 없어
자연환경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빠른 설치·경제적 효율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설치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도로를 달리는 바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됩니다.

1 풍력발전기 (가로등형)
주행 차량이 만들어내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

2 인버터·ESS
(가로등형, 3kW 인버터 + 10kWh ESS)
발전된 전기를 안정적인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고 저장

3 가로등 기둥 내부 배선
생산된 전력이 가로등 기둥 내부를 통해
지하 전력망으로 연결

4 기존 도로 전력망 연계
별도의 송전선로 없이
기존 도로 가로등 전력망(48V)에 바로 공급
(저압 분산 공급 방식)

지하 전력망
(가로등 배선)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

① 주행 차량 바람 발생
② 풍력발전기로 전기 생산
③ 인버터에서 전력 변환 및 저장
④ 가로등 기둥 내부로 전력 이동
⑤ 기존 전력망으로 연계 (48V)
⑥ 도로·주변 지역에 바로 공급

SEONGIL ENERGY INC

도로가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SWH 에너지 고속도로

도로 위의 바람을, 바로 전력으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70m 구간 기준

성일에너지 풍력발전



설비 정격	설치 수량
500W / 대	350대
발전량 산정 기준	하루 발전시간
대당 500W급, 최저 35W 가정	24시간

하루 예상 발전량 294 kWh

동일 구간 대비

약 4배

태양광 발전



설비 정격	설치 수량
600W / 장	35장
발전량 산정 기준	하루 발전시간
600W / 장 × 유효 일조시간	3.5시간

하루 예상 발전량 73.5 kWh

SEONGIL ENERGY INC

성일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도로 길이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깨끗한 전기가 생산됩니다.

1km 구간

70m 기준 약 14.3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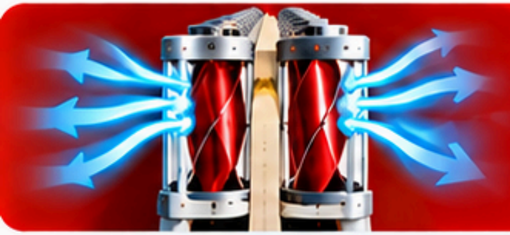
70m당 풍력발전기 수	1km 환산 풍력발전기 수	하루 예상 발전량
350대 (대당 500W)	약 14.3구간 5,000대 (대당 500W)	4,200 kWh (약 4.2 MWh)

100km 구간

70m 기준 약 1,428.6구간



70m당 풍력발전기 수	100km 환산 풍력발전기 수	하루 예상 발전량
350대 (대당 500W)	약 1,428.6구간 500,000대 (대당 500W)	420,000 kWh (약 420 MWh)



가드레일 양쪽(좌·우) 가드레일까지 설치하면
위 발전량의 약 3배로 확대됩니다.

1km 구간 약 12,600 kWh/일

100km 구간 약 1,260,000 kWh/일 (약 1.26 GWh/일)

SEONGIL ENERGY INC

도로가 발전소가 되면, 국가 전력망에 여유가 생깁니다.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배전망의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전력망 여유를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등 국가 핵심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전국 도로망 신재생에너지 생산



고속도로·국도·지방도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인버터와 ESS가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지역 배전망 부담 완화



도로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변 지역에 공급하여
지역 배전망의 전력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

송배전망 여유 확보



지역 단위에서 분산 공급된
전력으로 송배전망의
운영 여유가 확보되어,
국가 전력계통이 더욱 안정화

데이터센터



AI 시대,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반도체 공장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 전력 수급 보장

기타 대규모 산업시설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다양한 대규모 산업시설의 전력 수요 대응

분산형 전원으로 계통 안정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분산형 신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돕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감축 동시 달성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로
깨끗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기여합니다.

국가 핵심 산업의 전력 수급 여력 확보

확보된 전력망 여유를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등
국가 핵심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SEONGIL ENERGY INC

도로에서 생산한 전기가 국가 전력망을 함께 지탭니다.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이
기존 전력망에 분산 공급되어,
발전소의 **전력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력계통을 안정화**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바람이 대한민국의 전력을 지탭합니다.



성일에너저
더블 로터 제너레이터

- 기존 고전압 전력망(345kV, 765kV)
- 고속도로(전력 생산 구간)
- 도로 풍력발전 전력 공급 흐름
- 국가 전력망 지원(부하 경감)
- 주요 발전소
- 변전소
- 전력 공급 연계 지점





기존 발전소

도로에서 생산한 전력이
전력망으로 유입되어
발전소의 출력 부담을 경감합니다.



국가 전력망

도로 풍력발전 전력이
기존 고전압 전력망에 분산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고속도로 풍력발전

전국 고속도로의 바람을
전기로 변환하여
가로등·ESS를 거쳐
전력망에 공급합니다.

분산형 전력 공급 국가 전력계통 안정화

지역별로 생산된 전력이 전력망에 분산 유입되어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합니다.

발전소 출력 부담 경감

도로에서 생산한 전력이 일부 전력을 대체하여
기존 발전소의 연료 사용과 운영 부담을 줄입니다.

전력망 효율 향상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된 전력이 직접 공급되어
송전 손실을 줄이고 전력망 효율을 높입니다.

탄소배출 저감

화석연료 발전의 가동률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SEONGIL ENERGY INC | 도로가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먼저 일부 구간에서 시작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점전적으로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합니다.

달리는 바람이
대한민국의 전력을 지탱합니다.



가로등형 인버터·ESS
- 3 kW 인버터 + 10 kWh ESS
- 독립형 에너지 저장장치

① 시범 구간 (예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 천안 (약 100 km)



구간 길이	가로등 수	하루 예상 발전량
100 km	약 2,800개 (1km당 28개 기준)	420 MWh (17.5 MW 평균출력)

② 주요 노선 확대

경부 + 서해안 + 중부 + 호남 등
핵심 노선 (예시 1,000 km)



구간 길이	가로등 수	하루 예상 발전량
1,000 km	약 28,800개	4,2 GWh (175 MW 평균출력)

③ 전국 고속도로 확대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약 5,000 km)



구간 길이	가로등 수	하루 예상 발전량
5,000 km	약 140,000개	21 GWh (875 MW 평균출력)



전국 적용 시 기대 경제 효과 (연간, 가정)

연간 예상 발전량	연간 전력 판매 수익	연간 탄소감축 효과 (추후 배출계수 적용)
약 23 TWh (63 GWh/일 × 365일, 가정)	약 3.45조 원 (전력단가 150원/kWh 기준)	– (석탄화력 대체 기준)

국내 전체 원전 대비 약 10% 규모

에너지 고속도로 2.625 GW	국내 원전 26.05 GW
(양측 가드레일 포함, 가정)	(26기, '25년 기준)

SEONGIL ENERGY INC

전기를 생산하는 도로에서, 더 가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도로로.

도로 위의 바람과 태양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성일에너지가 함께합니다.

- **깨끗한 에너지** 탄소중립 실현
- **더 안전한 도로** 지능형 안전 인프라
- **지속가능한 수익** 전기판매·REC 판매
- **함께 만드는 미래** 협력 파트너 모집

3.2 kW 오늘 28.5 kWh 누적 12,450 kWh

2.8 kW 오늘 25.1 kWh 누적 11,230 kWh

3.1 kW 오늘 26.8 kWh 누적 9,850 kWh

3.5 kW 오늘 30.2 kWh 누적 14,110 kWh

가로등형 인버터 · ESS
- 3kW 인버터 + 10kWh ESS
- 독립형 전력공급 (48V)
- AI 전력량 계측 및 통신

AI 전력량 카메라
- 전력 생산량 실시간 계측
- 설비 상태 원격 모니터링
- 이상 징후 자동 알림

통신 모듈
- LTE/5G
- 실시간 데이터 전송

전력 생산 모니터링
가로등별 실시간 발전량
인버터 · ESS 상태 확인

전력 분배 관제
발전 → 저장 → 사용
계통 연계 최적화

전기 판매 · REC 판매
한전 계통 연계
전력 거래 · REC 수익화

수익 분석 리포트
일별 · 월별 · 연간 발전량
수익 예측 · 탄소 감축량

설비 상태 원격관리
인버터 · ESS · 카메라 상태
이상 감지 및 자동 알림

협력 파트너 지원
제품 구매 · 사업개발 · 시공
운영 · 유지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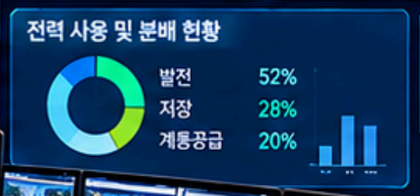
AI 전력 통합 관제센터

가로등별 전력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나로 관리합니다.











성일에너지(주) 협력 파트너 기업 모집

제품 구매 · 사업개발 · 시공 · 설치 · 운영 · 유지보수

성일에너지(주) SEONGIL ENERGY

기술과 제품은 성일에너지가 공급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사업협력 문의
010-4405-5604

SEONGIL ENERGY INC | 도로가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70m의 시작이, 전국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됩니다.

검증된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시범사업 (70m)

작게 시작해 빠르게 검증



구간 길이	평균 발전출력	하루 예상 발전량
70 m	12.25 kW	294 kWh
(가로등 약 70개)	(발전기 350대)	

설치 · 운영 · 데이터 검증

기술 / 안전성 / 경제성 확인

2 구간 사업 (1km)

수익성을 입증하는 핵심 단계



구간 길이	평균 발전출력	하루 예상 발전량
1 km	175 kW	4.2 MWh
(가로등 약 1,000개)	(발전기 5,000대)	

실제 운영 · 전력판매 시작

사업 수익 모델 확립

3 노선 확대 (10 ~ 100km)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장



10 km		100 km	
평균 발전출력	하루 예상 발전량	평균 발전출력	하루 예상 발전량
1.75 MW	42 MWh	17.5 MW	420 MWh
(발전기 50,000대)		(발전기 500,000대)	

구간별 투자 유치 · 수익 확대

표준화된 모델로 빠른 확장

4 전국 확대 (약 5,000km)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 완성



전국 구간	평균 발전출력	하루 예상 발전량
5,000 km	875 MW	21 GWh
(가로등 약 140,000개)	(중앙발전대 기준)	(중앙발전대 기준)

안정적인 분산 전력망 구축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

투자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

안정적인 전력판매 수익
장기 · 안정적 수익 구조

단계별 투자 가능
70m, 1km, 10km 등 유연한 투자 단위

실증 기반 사업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검증된 모델

데이터 기반 확장
운영 데이터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탄소배출 저감
청환경 에너지 생산

기존 도로 인프라 활용
추가 부지 불필요

지역사회와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에너지 자립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계산 기준 및 안내

- 풍력발전기 1대 정격출력 500W 기준, 발전량은 평균 35W(정격의 약 7%)를 적용한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 하루 24시간 발전을 가정하여 산정한 값으로, 기상 조건, 설치 환경, 운영 효율에 따라 실제 발전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단계별 실증을 통해 데이터를 측적하고,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발전량과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갑니다.

성일에너지와 함께할 파트너를 기다립니다.

검증된 기술, 명확한 수익 모델,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 · 기관 · 투자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파트너 문의 ▶

SEONGIL ENERGY INC

전기를 생산하는 도로에서, 생명을 지키는 도로로.

AI가 도로를 감지하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듭니다.



AI 통합 관제센터

도로·발전·안전을 하나로 모니터링



실시간 영상 분석 · 사고·위험 알림 · 경찰·소방 연계 · 교통 흐름 분석 · 지자체·관계기관 연계

사고·정차 감지

사고 차량, 돌발 정차, 2차 추돌 위험 감지



위험운전 분석

급차선 변경, 역주행, 비정상 주행 패턴 감지



노면 위험 감지

결방·침수·낙하물 등 위험 감지



긴급 대응

관제센터 자동 통보 경찰·소방 연계 지원



실시간 교통정보

정체 분석, 내비게이션 연계, 우회 안내



차량 이동 확인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고·수배 차량 확인 지원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도로를 넘어,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도로를 만듭니다.

SEONGIL ENERGY INC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함께 시작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깨끗한 에너지, 더 안전한 도로, 함께 만드는 더 큰 미래

가로등형 인버터 · ESS
- 3kW 인버터 + 10kWh ESS
- 독립형 전력공급 (48V)
- AI 카메라 연동

AI 도로 감시 카메라
- 차량 인식 · 번호판 인식
- 사고 · 정차 감지
- 이상 상황 자동 알림



상황실 (관제센터)
-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 사고 · 위험 상황 감지
- 교통 흐름 분석
- 지자체 · 관계기관 연계
- AI 기반 도로 안전 관리

차량 인식 | 사고 감지 | 차선 변경 감지 | 번호판 인식 123가 4568

성일에너저(주)

연구개발 · 첨단기술 · 제품 공급

풍력발전기 (코아리소 · 이중로터) | 인버터 | ESS | AI 카메라 | 제어기술

협력 파트너 기업

제품 구매 · 사업개발 · 시공 · 운영 · 유지보수

제품 구매 | 사업개발 | 시공·설치 | 운영 | 유지보수

파트너가 얻는 새로운 사업 기회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발전



AI 도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장기 운영·유지보수 및 사업 확대

성일에너지(주) SEONGIL ENERGY

기술과 제품은 성일에너지가 공급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사업협력 문의
010-4405-5604

SEONGIL ENERGY INC | 도로가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달리는 바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됩니다.



대표 인사말

도로 위의 바람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기후위기, 그리고 노후된 전력망이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전은 한 기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해상풍력도 오랜 인허가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은 **부지 부족과 송배전망 확충의 한계**로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성일에너지는 이미 우리 결에 있는 도로와 교량을 새로운 발전소로 활용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검증된 소형 풍력발전기를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연속 설치하면
별도의 부지, 새로운 송전탑 없이도 1년 안에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이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도시도로, 한강 교량 등으로 확대된다면
원전 여러 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성일에너지는 깨끗한 환경, 안정적인 전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일에너지(주)
대표이사 김영실

깨끗한 환경
탄소배출 저감

안정적인 전력
송배전망 부담 완화

지역과 함께
분산형 에너지

지속가능한 미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SL SEONGIL ENERGY INC

달리는 바람이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됩니다.

The Future Runs 24 Hours

Modular. Scalable. Profitable



(주)성일에너지 (Seongil Energy Co., Ltd.)
김만익 기술총괄 전무이사
010-4405-5604 | www.seongileng.kr | kjs8876@naver.com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30, 1215호 비즈나인